

오병이어 선교회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께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 드립니다.

미국 호피(Hopi) 원주민 선교사 박영진 목사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월 사역소식

1. 2월 한 달 목회사역(예배, 심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2. 교회 건물을 가져다 놓을 곳에 대한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계약하기에 앞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업체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새로운 건물이 입고되는 날이어서 건물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직접 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려고 했었기에 이에 대해 조언을 구했는데, 그 직원은 콘크리트 대신 자갈을 까는 것을 추천하면서, 15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말을 믿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분의 조언대로 자갈로 공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기초공사를 콘크리트로 했다면, 직접 공사를 하던, 업체를 선정해서 하던, 제가 전면에서 나서서 모든 일을 진행했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저도 큰 수고를 했었을 것이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 가장 적절한 조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교인 S의 조카사위가 호피 안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원래 대로라면 주변 정리는 땅 주인이 하고, 그 후에 이 분들이 자갈을 실어 와 정지작업만 해주는데, 감사하게도 정지작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주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초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중에 건물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들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목사 배연택)에서 2월 3-5일 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달라스중앙감리교회는 오랫동안 호피원주민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인데, 작년에 배연택 목사님이 새롭게 담임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선교팀 담당 교역자와 부장 권사님과 함께 이곳 선교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특별히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와는 교회가 세워질 교인 S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진행될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제목

1. 교회 건축 과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Soongopavi Halayki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새롭게 교회가 건축될 예정이지만, 기존의 교회 건물도 다시 찾아 그곳에서도 사역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송고포비 마을지도자인 “Lee Wayne Lomayestewa”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저와 저희 가족들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 2월 호피 땅에서
박영진 선교사 올림